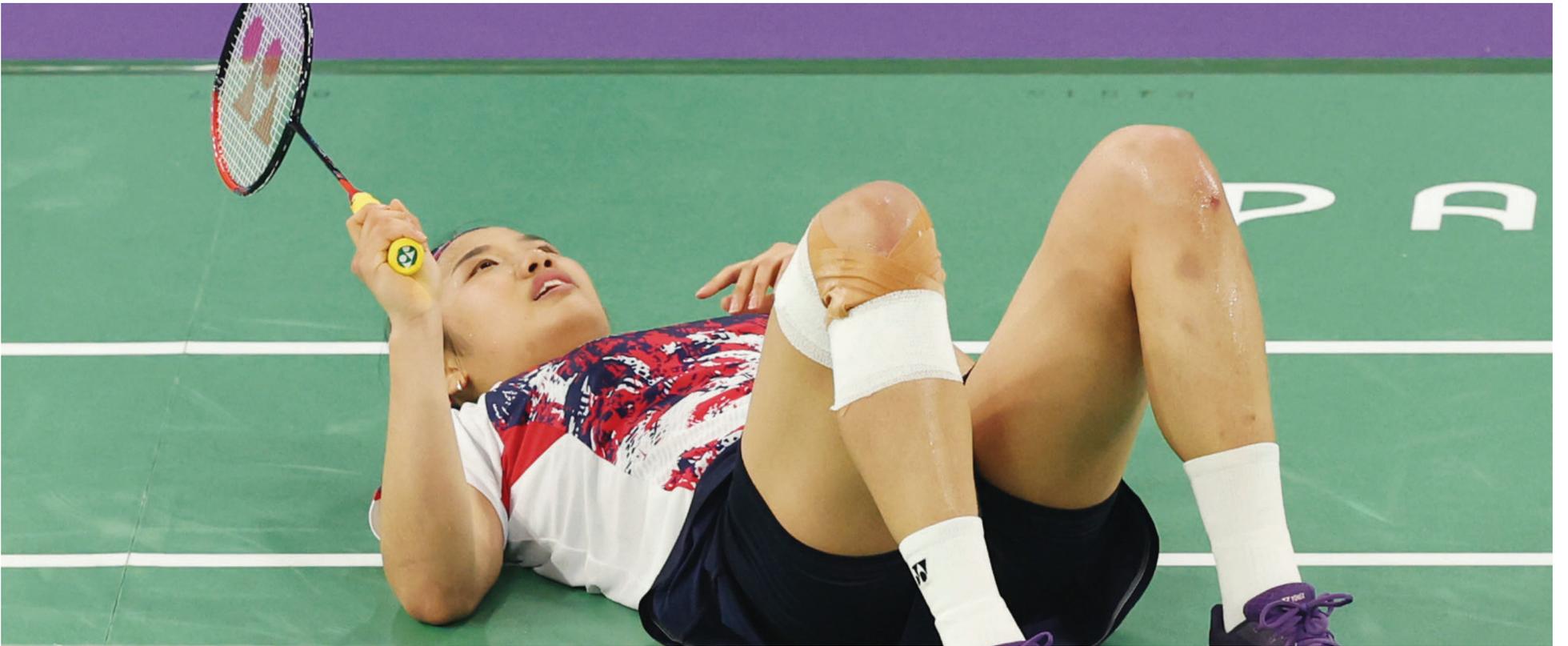


안세영의 '작심 스매싱' 체육계 흔들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라 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상대로 시합을 하던 중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있다. 안세영은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 배드민턴협회 향해 ‘분노’ 표출 문체부 “올림픽 후 경위 파악”...체육계 변화 가져올지 주목

“우리 협회는 모든 걸 다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라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2-0(21-13, 21-16)으로 제압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올림픽 무대까지 평정하면서 서툰 여왕으로 대

관식을 치른 이날, 안세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스포츠팬들에게도 화제의 인물이 됐다. 하지만 그의 금메달이 아니라 '작심 발언'에 시선이 집중됐다. 안세영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을 향한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열린 항주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으로 고전했던 그는 부상 이후 재활 과정과 부상을 안

고도 올림픽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국제 대회에 나서야 했던 심경 등을 밝히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안세영은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었다.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기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는 글을 올리면서 은퇴 해석

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메달리스트가 최고의 순간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포기하고 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자 인터넷상에 협회를 향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6일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겠다.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

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대회 전후로 선수와 협회의 갈등은 심심치 않게 불거졌다. 대표 선수 선발 등 협회의 운영을 놓고도 전 국민의 비난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안세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체육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금묘환향' 양궁 대표팀 귀국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싹쓸이한 한국 양궁 대표팀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전훈영, 임시현, 남수현.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에 여자 개인전 은메달 1개, 남자 개인전 동메달 1개를 합쳐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동네 형 따라 사격장에 갔다 권총 매력에 '푹' 만기전역 택한 한국 첫 속사권총 메달리스트

사격 25m 속사권총 銀 장성 출신 조영재 장성 출신 조영재(25·국군체육부대·사진)가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m 속사권총에서 '은빛 총성'으로 한국 사격팀에 6번째 메달을 선물했다. 조영재는 금메달을 명중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첫 국제 대회 메달을 올림픽 무대에서 따내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 이 메달로 조영재는 속사권총 종목 한국의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장성에서 태어난 조영재는 사정초 6학년 당시 동네 형을 따라 사격장에 갔다가 권총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삼계중과 서울체고를 거쳐 경기도청 소속으로 뛰었던 그는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 '말년 병장'이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전역일인 오는 9월 19일보다 일찍 병역을 마칠 자격을 갖췄지만 조영재는 만기전역을 택했다. 속사권총은 예선을 통해 선발된 상위 6명이 결선

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영재는 전날 예선에서 합계 586점을 쏘며 전체 29명 중 4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5위 마시모 스피넬라(이탈리아)와 점수는 같지만 과녁 정중앙 '엑스텐'을 쓴 개수에서 조영재가 22-19로 앞섰다. 결선은 4초 내 5발을 사격해 8시리즈 총 40발을 쏘는 방식으로, 4시리즈를 마친 뒤엔 최하위 선수 한 명씩 떨어진다. 조영재는 3·4·5시리즈에서 5발 가운데 4발을 명중하며 19점으로 1위에 자리했다. 4명이 남은 6시리즈에서 조영재는 2발을 맞춰 21점이 됐고, 5발 명중으로 23점이 된 리웨훙(중국)에게 선두를 내줬다. 조영재는 7시리즈에서 3발을 맞춰 24점, 2위로 은메달을 확보했다. 리웨훙은 27점으로 1위를 달렸다.



마지막 시리즈에서 리웨훙이 5발을 다 맞춰 32점으로 금메달을 확정했고, 조영재는 1발을 추가하며 25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영재는 이번 올림픽 '효자종목'인 한국 사격에 6번째 메달을 더했다. 한국 사격은 조영재의 메달을 끝으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이번 올림픽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앞선 최고 성적은 2012 런던 대회에서 기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에 출전하는 양희영(오른쪽)과 고진영이 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르 골프 나쇼날에서 연습 라운드를 마친 뒤 오후 마크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골프 '골든 샷' 시동

고진영, 1·2R 코다·인뤄닝과 한 조...양희영·김효주 등 7일 출격

2024 파리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골프의 선봉에 설 고진영이 1·2라운드에서 세계랭킹 1위이자 지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넬리 코다(미국)와 함께 경기한다. 5일(현지시간) 발표된 파리 올림픽 여자골프 조편성을 보면 고진영은 코다, 인뤄닝(중국)과 1·2라운드 같은 조로 묶였다. 이들은 한국시간 7일 오후 4시 55분 프랑스 파리 인근 기양쿠르의 르골프 나쇼날 1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현재 세계랭킹 4위인 고진영은 이번 시즌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이 없지만, 통산 15승을 거두고 세계 1위도 오래 지켰던 한국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이다. 세계 2위이던 2021년 금메달 기대감 속에 출전한 도쿄 올림픽에서 9위에 자리한 그는 이번 대회에서 다시 메달을 정조준한다. 고진영과 함께 경기할 코다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디펜딩 챔피언이다. 이번 시즌에만 LPGA 투어에서 6승을 거두며 세계랭킹 1위를 고수하는 최강자이기도 하다. 인뤄닝은 세계랭킹 5위로, 지난해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LPGA 투어 3승을 보유했다. 한국 선수 중 현재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3위이며 올해 6월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양희영은 개최국 프랑스의 간판인 쉐린 부티에(세계랭킹 7위), 세계랭킹 2위 릴리아 부(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김효주는 캐나다의 브룩 헨더슨, 중국의 린시위와 한 조로 편성됐다. 김효주는 한국시간 7일 오후 5시 11분, 양희영은 오후 6시 55분 출발한다. 한국은 골프가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박인비가 여자부 금메달을 목에 건 뒤 8년 만의 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